

'우승을 노린다면 FC서울을 이겨라'

전북현대, 오늘 맞대결...이기면 승점차 커져 우승 유력

리그 20경기 연속무패 신기록 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늘 리그2위 FC서울(승점34점)의 홈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두 팀의 최근 분위기는 큰 차이가 있다. 전북은 시즌 초반 불안하던 조직력 문제를 해결하고 11승 9무 0패 승점 42점으로 독주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시즌 시작 직후 6연승을 질주하며 리그 선두를 질주했던 서울은 기세를 이어가지고 못하고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최용수 감독이 중국으로 이적해 황선홍 감독으로 사령탑을 교체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전북은 최근 주포 이동국이 부상을 당해 리그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됐지만 미드필더진의 김보경, 이재성, 이호기 최상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주전으로 거듭나 안정감 있는 경기를 거듭하고 있다. 이동국의 빈자리를 전남에서 이적해 온 이종호가 중요한 고비마다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며 골을 넣고 있다.

하지만 전북은 최근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경기는 주도했지만 한 두 번의 날카로운 역습에 당해 패배한 경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은 확고한 주전으로 거듭난 이재성, 김보경을 중앙미드필더로 배치하고 이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할 예정이다.

공격진은 이종호를 원톱으로 세우고 우측왕에 로페즈, 좌측에 레오나르도를 배치해 서울의 골망을 조준한다. 이전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운영할 예정이다.

황 감독이 이끄는 서울은 핵심선수인 아드리야노가 6경기 출장정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데얀 윤일록, 박주영을 쓰리톱으로 내세워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또한 서울은 상대의 강력한 공격을 막기 위해 수비적인 3-4-3 포메이션을 사용해 중원과 수비진을 두텁게 한다.

만일 이번경기에서 서울이 승리한다면 두 팀의 승점 차는 5점으로 줄어들어 선두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단장 이철근)이 오늘 리그2위 FC서울(승점34점)의 홈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1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하지만 전북이 승리한다면 두 팀의 승점 차이는 11점으로 벌어져 지난 시즌처럼 일찌감치 우승팀이 결정 날 확률이 높다. 다만, 전북은 지난 심판청탁 사건으로 인해 시즌 중 승점 10점 삭감이라는 중징계

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모든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리그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두 팀의 경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민근기자

현실과 웹툰속 세상 오가며 자신의 존재 이유 모색

이종석·한효주 출연 MBC TV 새 수목드라마 'W' 오늘 첫방송

"이런 드라마 처음이야!"(한효주), "배우려면 누구나 하고 싶어 할 드라마"(이종석),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는 드라마"(정대운PD)

MBC TV 새 수목드라마 'W' 두개의 세계(극본 송재정·연출 정대운·W)를 이끄는 세 주역은 이렇게나 자랑스럽게 드라마를 소개했다.

'W'는 여자 주인공 '오연주'(한효주)가 사는 현실세계와 남자 주인공 '강철'(이종석)이 사는 웹툰 속 세계, 각기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남녀가 차원을 이동해 서로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우연히 두 세계가 통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자신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오연주'를 찾아 나서는 '강철'과, 그의 세계를 알게 된 후 위기에 처한 '강철'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오연주'의 "서스펜스·스릴러·코믹·호러 로맨스"(정대운PD)다.

'나인 아홉 번의 시간여행' '인현왕후의 남자' 등으로 대한민국 드라마계에 타원 슬람볼의 역사를 다시 쓴 송재정 작가의 작품으로 화제가 됐다.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드라마라서 시청자가 좀 어려워할 것 같다는 걱정은 처음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장르물이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시청자가 드라마를 소비하는 형태가 달라진 것 같아서 좀 더 시청자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정대운PD)

복잡한 차원을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정대운PD의 방법은 색감이다. '오연주' 사는 현실 세계는 분홍빛을 띠고, '강철'이 사는 웹툰 세계는 푸른빛을 띤다. 이 외에도 시차와 함께 '지난 이야기'로 지금까지 줄거리를 정리해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주인공의 연기다. 한효주·이종석의 연기로 복잡하고 어려운 차원과 감정을 설명해야 한다.

"사실 황당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이 살아있고 거기에 공감되면 따라가고 입할 수 밖에 없어요. 다행히 두 사람이 굉장히 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드라마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대운PD)

만화적인 상상력을 차용한 민품 일러스트



최근 서울 마포구 상암MBC 골든미우스홀에서 열린 MBC 수목 미니시리즈 'W' 제작발표회에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트가 실사로, 실사가 일러스트로 바뀌는 화면전환이 압권이다. 반사제작을 목표로 촬영과 후반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주면 8회까지 제작이 완료된다.

"기존의 TV드라마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상상력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봤던 것들을 시도하면서 어려운 지점이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

니다. 준비할 것과 표현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정대운PD)

한효주, 이종석과 함께 김의성, 정유진, 이태환, 이시연 등이 출연한다.

오늘밤 밤 10시에 첫 방송된다.

/김민근기자

도체육회, 리우올림픽 출전 전북 선수단 격려

전라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가 리우데자제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을 격려했다.

전북체육회는 19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2016 리우하계올림픽 결단식'에 참석해 전라북도 선수단을 찾아 출전선수들을 격려했다.

송하진 지사는 선수단을 위해 응원 격려 영상 메시지를 만들어 전달하는 노력을 보이기도 했다.

전라북도체육회 최형원 스포츠진흥처장은 "그동안의 흘린 땀방울만큼 리우 올림픽에서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큰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국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선사해줄길 바란다"고 전했다. 선수단은 선수4명과 임원 8명 등 13개 종목 22명이 출전해 국가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김민근기자



영화 '부산행' 극장가 예매점유율 70%

잡채산블록버스터 '부산행'(감독 연상호)의 예매점유율이 개봉 하루를 앞두고 70%까지 치솟으며 극장가 장악을 예고하고 있다.

19일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부산행'의 예매점유율은 70.0%를 기록 중이다. 예매관객수만 15만8866명, 예매매출액은 12억6700만원이다.

이같은 '부산행'의 개봉 전날 예매관객수는 올해 970만 관객을 불러모은 '검사외전'(13만2401명)을 비롯해 '명량'(11만5419명) '합살'(6만4997명) '베테랑'(3만7594명) 등 기존 1000만 영화보다 높은 수치다.

공유·마동석·정유미·김의성 등이 출연했고, 애니메이션 영화 '뽀빠의 왕'(2011) '사이비'(2013) 등으로 주목받은 연상호 감독의 세 번째 장편영화이자 첫 번째 실사영화이기도 하다.

/김민근기자

엑소 '디 엑슬루션' 화보집 26일 발간

그들 엑소의 지난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디 엑슬루션(The EXO's EX'LU'XION)'을 담은 화보집이 오는 26일 발간된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번 화보집에는 지난해 3월 서울을 시작으로 도쿄 베이징, 홍콩, 방콕, 뉴욕, 시카고, LA, 텔러스 벤쿠버 등 전 세계 25개 도시에서 44회에 걸쳐 열린 콘서트 현장을 생생하게 실었다.

특히 콘서트 무대 위의 멋진 모습 뿐 아니라 리하설부터 백스테이지 풍경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엑소의 다양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사진으로 구성됐다. 또 화보집을 위해 진행한 특별 인터뷰를 통해 공연 에피소드와 소감, 멤버들 간의 솔직한 이야기, 팬들을 향한 메시지 등을 전한다.

오는 26일 전국 매장에 오프라인 발매된다.

한편 엑소는 오는 22~24일, 29~31일 6일 동안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세 번째 단독 콘서트 '디 엑소디움(The EXO'DIUM)'을 연다.

/김민근기자